

보도 자료

전시명 : 양평 프로젝트

작가명 : 김용익 (경원대 교수) 019-378-8177

전시 장소 :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광장

전시 기간 : 2000. 8.3 - 8.22

1. 양평 프로젝트는 2000, 새로운 예술의해 “미술 축제” 공모 당선작 중의 하나로서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어있는 미술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시이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 김용익과 일반 시민들의 공조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의 참된 실행이다.
2. 전시작품 제작에 참여할 일반시민의 구성은 서울시민 100가족, 양평군민 100가족, 상봉 희망 이산가족 50가족, 주한외국인 50가족으로 되어 있다. 물 문제, 남북문제, 세계화 등 현 시대상을 아우르기 위한 인적구성인 것이다.
3. 서울 중심에서 바라보자면 팔당상수원지역 특히 양평은 반환경적 요소로 가득하다. 그러나 양평 속에 들어가보면 환경보전을 가장 큰 자구책으로 삼고 있음을 쉽게 만날 수 있다. '98년, 양평 군민들은 맑은 물을 사랑하는 환경 농업 도시로서의 양평,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로서의 양평을 염원을 담은 '8만 군민이 벽돌 한장 씩, 벽돌 8만 장 모으기'라는 자발적 시민운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모였던 벽돌이 바로 이번 양평 프로젝트의 기본 재료가 된다.
4. 이번에 설치되는 양평프로젝트의 벽돌 조형물은 대지를 거스르며 솟아오르는 기념비성을 배제하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아 바닥에 낮게 깔리는 모습을 띠고있다. 각 벽돌에는 양평 군민들의 손에 의해 맑은 물 사랑과 환경 보전에 관한 바람을 나타내는 글들이 씌여진다.
5. 전문가인 작가와 비 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만나 이루는 이러한 공공 미술은 새로운 예술의 해가 추구하는 새로움의 개념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본다. 단순히 벽돌 조형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일련의 이벤트들을 통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양평 군민) 들과 소비지역 주민(서울시민) 들간의 정서적 편차의 극복을 일궈내는 공공성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개념이라 확신한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8월 3일, 같은 날 국립 민속 박물관 주최로 열리는 허수아비 축제와 접속되면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맑은 물 사랑, 환경보전, 등등의 글을 벽돌에 쓰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6.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양평의 농부들은 서울시민들에게 환경농산물로 만든 야채샐러드를 제공하고, 양평 맑은물사랑 무용단, 강상 한소리패(양평 강상면 주민들로 이루어진 풍물패) 는 양평의 문화를 제공한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예술작품”이라는 폐쇄회로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속으로 열리며 풀려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공공성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